

의사 소견서 내용 ▶ “트랜스젠더, 남성 성기, 여성 성향”



교도관 J

해리스 간호사님, 이 피의자 신체 검사를 마친 건가요? 피의자 피오르의 사적인 부분까지 다 검사 하셨나요? 간호사님? 신체 검사를 확실하게 하신 것 맞는 거예요?



해리스 간호사

에이...귀찮게...
그녀는 남자가 맞아요!!!!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진 해리스 간호사를 등지고 교도관 J와 K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어쩔 수없이 의사의 소견서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피의자 피오르 피카도는 여성임에도 남성 교도소로 끌려가 구금됐다.

하루 전날 오후, 마이애미 국제 공항에서 피오르는 새로 태어날 손주 생각에 기쁨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반가운 딸 대신에 경찰과 먼저 마주해야 했다. 옛 마약 건으로 그녀 앞으로 영장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서에서 체포되어 들어온 도미니카 공화국 변호사였던 피오르를 제일 먼저 검사한 건 한 여성 경찰이었다. 절차대로 알몸수색을 하여 혹시라도 숨겨진 밀수품은 없는지 꼼꼼히 뒤져보았다. 그 여성 경찰의 보고 내용은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음”이었다. 피오르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기에 절차상 다시 한 번 신체 검사를 위해 의무실로 보내졌다. 의무실에 있던 해리스 간호사는 귀찮은 듯 새로 들어온 피의자 파일을 이리저리 들여다 보았다.



해리스 간호사

보자, 보자... 50세 여성, 고혈압이 있고... 어라? 호르몬 약을 섭취 중이네? 오드리 교도관님, 이 피의자 혹시 남자 아녜요?? 호르몬 약을 먹고 있다는데요?



오드리 교도관

에이... 그럴리가요, 여자라서 여자인 제가 데리고 온 건데요?



해리스 간호사

간혹 남자 간수들이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 약 섭취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여기 봐봐요, 호르몬 치환 요법 중이잖아요.



오드리 교도관

그렇긴 한데... 분명 체포 직후 피의자 명부 작성시에 검사해서 여성으로 분류 되었는데...



해리스 간호사

피의자 피오르씨, 당신은 당신의 젠더가 무엇이랑 생각합니까?



피오르

네에? 그게 무슨 질문이죠? 당연히 여자이죠!!

당황한 피오르를 해리스는 검사실로 안내를 했다. 그녀는 의사가 곧 오실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다. 곧, 담당의 가르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오르에게 이것 저것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질문의 범위는 의료 기록, 시력 검사, 외상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피오르의 신체 검사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는 주어진 자료만을 기준으로 그녀가 트랜스젠더라고 의심하였고, 그 의심은 그로 하여금 피오르가 트랜스젠더여서 호르몬 치환 요법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가 던진 성별에 관한 유일한 질문은 '모든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가' 뿐이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남성이라고 기재했고, 호르몬 치환 요법을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라서 일반 남성교도소로 보내도 된다고 소견을 남겼다.

그렇게 피오르는 억울하게도 40명의 남성 죄수들이 바글거리는 남성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교도관과 많은 죄수들의 비웃음과 음흉한 시선에 화장실도 못 가고 바지에 실례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피오르의 가족의 도움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그녀는 교도소에서 남성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그녀의 신체검사를 했던 간호사는 곧바로 실수를 알아차려 그녀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 본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일로서 수치심을 느낀 피오르 피카도 Fior Pichardo는 카운티,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현재 고소한 상태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오르는 소송에서 검사관과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끔찍하고 평상적이지 않은 벌칙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피오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심에서 법원은 사태가 심각한 만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어주었고, 간호사와 의사의 '고의적인 무관심'을 꼬집었습니다. 피오르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많은 일관되고 반복되는 증거를 '고집스럽게 거부'한 것과 여성을 남성 교도소에 보낼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심이 가면서도 남성으로 다시 분류 하기 전에 더 정확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성별을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걸까요? 생물학적 기준일까요? 아니면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주장만하면 다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성별정정을 원한다면 성전환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정정신청이 완료된 곳 중 한곳 인데요, 출생신고서나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성별을 바꿀 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젠더 변경gender transition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서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이 되어야지만 성별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속 가르시아 의사처럼 의사들조차도 성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헛갈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생물학적 증거와 모든 서류가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호르몬 약을 먹으며 젠더를 변경 중인 남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물학적인 성별의 기준은 매우 쉽고 명백합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기준이 없는 젠더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확실한 기준을 가진 생물학적 성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